

原文

深學長，你記得嗎？我大一的時候，你飛越14小時的時差來找我的那年暑假。
球隊不必訓練的週四，我們決定一起去休士頓太空中心。
因為沒有太多錢，我們選擇乘坐市區巴士前往。

單趟車程就將近2小時。不是什麼像樣的約會，對吧？
我甚至在巴士的晃動中睡著了。
當我在你的肩上醒來，你的手掌正無意識的在我的大腿輕拍，
市區的建築輪廓在你的臉頰落下了棱角分明的光塊。

那時我就有種模糊的預感，這個情景將會不斷在我的生命裡溫柔地重演。
也或許早已發生過千百次了。
無論是入學時你帶我去市區理髮的那班電車，
或者高二夏天那輛從廣島發車的回程巴士，
只要你像這樣在我身旁，我就能去往任何地方。

真奇怪。至今我仍記得你由窗外轉回視線，
低聲問我為什麼快哭了的表情，
卻很難回想起那天參訪的火星探索計畫或巨型的太陽系模型。

無盡的廣袤宇宙中，我所著迷的從來都是名為深津一成的那座星系。
由原恆星誕生至超新星爆炸，我將恆久地愛你。

韓文 한글

명헌이 형, 그거 기억나요?

내가 대학 1학년이었을 때, 형이 14시간 시차를 넘어 나를 찾아왔던 그 여름방학.
팀 훈련이 없던 목요일, 우리는 휴스턴 우주센터에 가기로 했었죠.
돈이 많지 않아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기로 했었어요.

편도만 거의 두 시간이 걸리는 길. 제대로 된 데이트라고 부르기도 힘든 약속이었죠.
나는 버스의 흔들림에 그만 잠들어버렸고,
형의 어깨에서 깰 때 형의 손바닥이 무의식적으로 내 허벅지를 가볍게 두드리고
있었어요.
시내 건물의 윤곽이 형의 볼에 각진 빛 조각으로 떨어지고 있었죠.

그때 희미하게 예감했어요. 이 장면이 내 인생에서 부드럽게,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걸.
어쩌면 이미 수천 번도 더 일어난 일일지도 몰라요.
입학 때 형이 나를 데리고 시내 이발소로 갔던 그 전차,
혹은 고2 여름 히로시마에서 돌아오는 버스...
형이 이렇게 내 옆에 있어 준다면, 나는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.

이상하죠.

지금도 형이 창밖에서 나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
왜 울 것 같냐고 낮게 물었던 그 표정은 생생히 기억하는데,
그날 보았던 화성 탐사 계획이나 거대한 태양계 모형은 잘 떠오르지 않아요.

끝없는 광활한 우주 속에서
내가 매혹된 건 언제나 이명헌이라는 이름의 그 은하였어요.
원시별이 태어나 초신성이 폭발하기까지,
나는 형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.